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uration of Volunteering

송기영, 김육진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ee-Young Song(newskey@seojeong.ac.kr), Wook-Jin Kim(kimwj0227@uos.ac.kr)

요약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은 헌신도와 부착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헌신도의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조사하였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부착성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비록 약한 강도에 비정기적이라 할지라도 평생 혹은 그에 버금가는 긴 시간 동안 봉사를 일종의 ‘업’으로 삼아 꾸준히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일부 지속적 자원봉사자들의 특징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부착성의 관련요인들을 알아내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10년 간 실시된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8,415명의 20세 이상 성인 응답자 표본에서 추출하였다. 주된 분석방법으로는 영과잉 음이항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산발적이고 비정기적일지라도 자원봉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단단히 부착되어 봉사현장에 꾸준히 나타나는 소수의 지속적 자원봉사자들은 종교가 있고 상호호혜의식이 강한 저학력자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관리조직의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자원봉사 | 지속성 | 부착성 | 영과잉 | 과대산포 |

Abstract

The duration of volunteering can be analyzed in terms of commitment and attachment. Prev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duration of volunteering predominantly from the perspective of commitment. Alternativel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attachment and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volunteer habitually over their whole life, regardless of the regularity and the intensity of the volunteer work. In so doing, the study attempts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the attachment to volunteering. Data came from a sample of 8,415 participants, ages over twenty who responded to all the survey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from Wave 1 to 10.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was employed to analyze the total number of volunteering in the past ten years. Findings show that people with high attachment to volunteering were those with religion, less education, and a strong sense of reciprocity. Based on the findings, we provide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improved operation and management of volunteer organizations.

■ keyword : | Volunteering | Duration | Attachment | Zero-Inflation | Overdispersion |

1. 서론

1. 연구의 배경

일찍이 주성수[1]는 “일 회 또는 몇 차례에 그친 봉사 활동을 자원봉사로 볼 수 있는가?”라 질문하며,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인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표갑수[2]와 류기형 외[3]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자원봉사의 다양한 원칙과 정신들을 언급하면서 지속성이야말로 이타성, 무보수성, 자발성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의 정수를 구성한다고 역설하였다.

자원봉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봉사 업무를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의 강도로 수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개념을 이해하여 왔다[4][5]. 다시 말해, 특정 봉사업무의 지속기간, 참여주기, 참여시간을 중심으로 지속성 개념을 정의하여 왔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는 연구목적이나 조사대상에 따라 다소 편차를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6개월(또는 1년) 이상 최소 월 1회(또는 주 1회), 회당 3시간(또는 4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동일 봉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그렇지 않은 자원봉사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선행연구들의 입장을 수렴시켜 왔다[6][7].

그러나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기준을 시간적으로 6개월이나 1년, 길게는 3년으로 잡는다면, 강도 차원에서 주 1회, 격주, 혹은 월 1회, 그리고 회당 3시간 또는 4시간 이상 등으로 설정하는 접근방식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개념을 온전히 포착해 낼 수 있는 포괄성을 갖지 못한다. 이와 같은 비포괄성은, 우리 주변에 동일 봉사업무의 지속기간이나 참여주기, 참여시간 등에 크게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한 채 평생에 걸쳐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깊숙이 몰입된 상태로 현장에 - 비록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일지라도 - 꾸준히 나타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가 간다.

봉사활동을 일종의 ‘업(career)’으로 삼는 소수의 비정기적 자원봉사자들은 6개월이나 1, 2년 혹은 3년 단

위로 끊어서 보았을 때는 봉사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무관여자·무관심자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인물의 일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특정 시기에만 단기적으로 봉사활동을 강도 높게 수행한 후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대부분의 일반인들보다 봉사의 가치와 규범들을 월등히 깊숙이 내면화한, 진정한 의미의 지속적 자원봉사자일 가능성이 높다[8][9].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어떤 한 사람이 다양한 봉사 업무들을 1년 동안 비정기적으로 단 세 차례 수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기존 분류법에 따르면 분명 지속성이 떨어지는 자원봉사자로 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조사시기를 대폭 확장하여, 가령 20년에 걸쳐 동일인물을 추적조사하였고, 조사결과 해당 인물은 20년 간 빠짐없이 매 해 세 차례씩, 업무의 동일성 여부에 상관없이 각종 봉사현장에 비정기적으로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그 사람을 지속성이 떨어지는 자원봉사자로 분류할 수 있을까? 선행연구들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이 가공의 인물은 여전히 산발적·불규칙적 자원봉사자로 분류되고 말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위와 같은 분류방식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20년 동안 불규칙적이고 저강도일지언정 꾸준히 봉사활동을 한 사람은 비지속적 자원봉사자로 분류되는데 반해, 6개월이나 1, 2년 혹은 3년의 시간 동안 강도 높게, 예컨대 매주 한 차례 이상 회당 3시간씩 동일 봉사업무를 수행하였다가 이후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조사시점에 따라 지속적 자원봉사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속성에 대한 편향된 이해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선행연구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상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헌신도(commitment)’와 ‘부착성(attachment)’ 두 가지 하위차원을 구분하지 않고, 절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오로지 헌신도 차원에서만 지속성 개념을 이해하고 조작적 정의를 내려왔기 때문이다[10][11]. 지속성 개념의 하위차원 중 하나인 헌신도는 동일 봉사업무에 한 개인이 얼마나 강렬히 몰입하여 활동하느냐와 관련된 지표이다.

반면, 부착성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내면화한 한 개인이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얼마나 꾸준히 그러한 역할에 몰입하는지와 관련된 지표이다. 따라서 헌신도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동일 봉사업무의 지속기간, 참여주기, 참여시간 등이고, 이와 대조적으로 부착성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습관화된 봉사활동 그 자체, 즉 중도이탈이나 업무교체, 정기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평생에 걸쳐 봉사현장에 꾸준히 나타났는지 여부이다. 실제적으로, 이는 업무의 종류나 성격, 지속과 중단 여부에 상관없이 평생 또는 그에 버금가는 긴 시간 동안 한 개인이 관여한 모든 봉사활동들의 총참여횟수로 보통 포착된다[12].

2. 연구의 목적

절대다수의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헌신도 차원에서만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조사하여 왔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가 간과한 지속성의 또 다른 차원인 부착성에 초점을 맞추어, 비록 약한 강도에 비정기적이라 할지라도, 평생 혹은 그에 버금가는 긴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일종의 업으로 삼고 현장에 종종 출몰하는 습관적 자원봉사자들의 특징을 살피고, 이를 통해 부착성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을 밝혀냄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관한 우리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부터 10차년도 자료까지 총 10년 치 자료를 병합하여 분석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주된 방법론으로는 가산자료 분석, 구체적으로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II. 문헌검토

1.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지금까지 많았다[13-15]. 이들 연구들의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왜 어떤 사람은 다른 누군가보다 자원봉사업무를 더 오래, 더 충실히 떠맡는가?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에 한 개인을 몰입시키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이

와 같은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개념에 천착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은 헌신도와 부착성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고, 어떠한 차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지속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0].

헌신도란 동일한 봉사업무에 한 개인이 얼마나 강렬히 몰입하여 활동하느냐와 관련된 지표이다. 헌신도 개념에서는 특정 봉사업무를 얼마나 오래, 충실히 수행하였는지가 주요 관심대상이다. 때문에, 헌신도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동일 봉사업무의 지속기간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음으로 해당 봉사업무의 참여주기, 회당 수행시간과 같은 참여강도에 관심을 보인다[16].

실제로 국내 문헌을 검토해 보면, 절대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정의하고 분석에 적용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최영창과 장연심[17]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6개월 이상 동일 봉사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기준으로 정의하였고, 이해룡[18]은 그보다 훨씬 긴 3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지속성을 정의하였다. 이정해와 김현주[19]는 6개월 이상 동일 봉사업무 수행을 지속하되 월 1회 이상의 수행 주기성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정의하였고, 오효근과 김욱[20]은 지난 3개월 이상 동일 봉사업무를 계속함과 동시에 향후 1년 이상 그러한 업무를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 지속기간에 지속의지를 덧붙인 개념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을 정의하였다. 한국사회복합회의는 현장의 실무적 요구를 반영하여 1주 1회, 회당 3-4시간씩 동일 봉사업무 수행이 6개월 간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속성이 있는 자원봉사활동으로 규정하였다[21].

이처럼 국내 선행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대체로 지속기간, 참여주기, 참여시간의 측면에서 이해하여 왔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 고학력자, 고소득자, 비경제활동인구, 종교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하여 왔다[42][43]. 몇몇 연구들은 지속적

자원봉사자들의 특징으로 높은 자존감과 양호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같은 인지·심리적 요인들을 거론하기도 하였다[44][45].

그러나 국내를 벗어나 국외 문헌을 검토하다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은 오로지 지속기간, 참여주기, 참여시간의 측면에서만 이해되는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물론 해외에서도 아직 충분히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축적된 것은 아니지만, 이 분야의 외국 학자들 일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헌신도에 초점을 맞춘 기존 분류방식으로는 봉사활동을 평생에 걸쳐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발전시킨, 그래서 생애주기의 특정 단계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봉사 무관여자·무관심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자원봉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그 누구보다 단단히 부착되어 충성스럽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소수의 비정기적 자원봉사자들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 내기 어렵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하였다[8]. 이들 학자들은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이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부 봉사자 집단의 자원봉사활동 양상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적 틀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부착성 개념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제시된 지속성의 새로운 하위 차원이다[9][12].

부착성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내면화한 어떤 한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얼마나 꾸준히 그와 같은 역할에 몰입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8]. 부착성 개념에서는 특정 봉사업무의 지속기간, 참여주기, 참여시간, 지속의지와 같은 내용들이 관심대상에서 제외된다[10]. 왜냐하면, 이 개념은 원칙적으로 봉사업무의 지속이나 중단, 정기성 여부와 같은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사안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한 개인이 일평생에 걸쳐 봉사활동 일반을 - 설령 비정기적이고 저강도일지라도 - 습관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더욱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착성 개념에서는 동일 봉사 업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도 관심대상에서 제외된다[11]. 한 번 부여받은 업무를 교체 없이 지속적으로 도맡아 수행하였는지 여부보다, 장기간에 걸쳐 봉사현장에 나타났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총 몇 차례

봉사현장에 나타났는지, 즉 평생 혹은 그에 버금가는 긴 시간 동안 한 개인이 관여한 각종 봉사활동들의 총 참여횟수가 얼마인지를 더욱 중시한다는 것이다.

헌신도가 높은 사람과 부착성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둘은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분명한 구분이 가능한 별개의 개념이다[10]. 한 평생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할애했을 수 있지만(=높은 부착성) 여러 봉사단체를 전전하며 다양한 봉사업무들을 드문드문 떠맡았을 수 있고(=낮은 헌신도), 반대로 하나의 봉사단체에서 동일 봉사업무를 규칙적이고 빈번히 수행했을 수 있지만(=높은 헌신도) 개인의 생애과정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가령 20대 초반의 극히 짧은 1년 정도의 시기에만 강도 높게 자원봉사활동에 매진했을 수 있는 등(=낮은 부착성) 여러 조합의 불일치 사례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엄밀히 구분되어야 할 지속성의 두 가지 차원, 즉 헌신도와 부착성은 왜 효과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것일까? 선행연구들은 왜 오로지 헌신도의 차원에서만 지속성을 파악하였을까?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부착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봉사업무의 종류나 유형, 교체 여부, 지속과 중단, 정기성 여부 등에 상관없이 한 개인이 일평생 혹은 그에 버금가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자주 현장에 나타나 봉사활동에 습관적으로 참여하였는지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이미 그 개념 자체에 1년이나 2, 3년 정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분량의 긴 시간적 크기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한 번 조사를 마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평생 또는 그에 준하는 만큼의 긴 시간 동안 이들을 매 년 추적하며 조사를 반복하고,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을 했는지, 했다면 몇 번이나 했는지 따위의 질문들을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는 개별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공개된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면 이러한 한계를 다소 극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와 관련된 문항을 담고 있으면서 장시간에 걸쳐 동일 조사대상을 추적조사한 패널조사는 국내의 경우 한국복지패널 정도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 조사 역시 10년 치 자료의 축적을 달성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었다. 연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부작성 차원에서 자유롭게 살필만한 상황이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22].

방법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부작성 차원에서 검토한 연구가 국내에서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은주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은주[23]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개념을 정의하면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교육관련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한 차례 이상 수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지속성이 있는 자원봉사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속성이 떨어지는 자원봉사자라 규정하였다. 동일 봉사업무 여부, 중단이나 지속, 정기성 여부 등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3년의 시간 동안 한 번 이상 교육관련 봉사를 수행하였는가만을 기준으로 지속성을 정의함으로써, 이은주는 종래 국내 학자들이 헌신도 차원에서만 분석하던 지속성 개념에 부작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았지만 - 거의 최초로 도입하고 실제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권영섭과 정순돌[24] 역시 비슷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경험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부작성 개념을 탐색한 국내의 몇 안 되는 선행연구들은 모두 조사대상의 자원봉사 부작성이 정말로 큰지 아니면 작은지 여부를 정확히 가려낼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 길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공통적으로 갖는다. 어떤 한 사람이 자원봉사와 관련된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봉사활동을 일종의 생활양식의 수준으로까지 발전시켰는지 여부를 알아내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동일 조사대상을 추적조사 해야 한다[10]. 그런데 이은주[23]는 3년, 권영섭과 정순돌[24]은 6년으로 그 기간을 짧게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마저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응답자로 하여금 과거의 봉사활동 경험을 회고하게 하는 사후적 설문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드러내었다. 뿐만 아니라 이은주는 교육 영역에서의 봉사활동만을, 그리고 권영섭과 정순돌은 재해구조 영역에서의 봉사활동만을 제한적으로 조사하여 기타 영역에서 수행된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감안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

로써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다양하고 상이한 봉사업무들을 종종 바뀌가면서 수행하였을 수많은 잠재적 봉사자들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하였다.

방법론적 한계와 관련된 난항은 국외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부작성 개념이 해외의 연구자들에 의해 처음 제기되고 탐색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인 1990년대 중반이었다[8]. 그러나 적합한 자료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까지 이를 실증적으로 조명한 연구들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문헌에 보고된 몇몇 연구들조차 방법론적 차원에서 여러 취약점들을 노출하였다. 예를 들면, Planty와 Regnier[25] 그리고 Oesterle 외[26]는 각각 국가교육종단연구(The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12년과 9년 치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지속성을 부작성 차원에서 살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조사대상이 청소년과 초기 성인이었고, 따라서 중후기 생애과정 상 성인들의 봉사활동 지속성을 설명하고 일반화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비판을 받는다. 비슷한 연구가 미국생활변화조사(The American's Changing Lives Survey)를 바탕으로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다[27]. 그러나 이 연구 역시 4년 간격으로 총 8년의 기간(1986년, 1989년, 1994년)만을 제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료 자체의 풍부함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편, Johnson 외[28]는 미국 최상류층 가문의 백인여성들을 대상으로 1920년부터 10년 주기로 1960년까지 40년에 걸쳐 총 5회 실시된 비공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부작성 측면에서 살피고, 한 번 자원봉사를 해보았던 사람은 주요 생애주기의 매 단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계속 수행할 확률이 높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장시간의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부작성 개념을 검증하는 데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지만, 이 연구는 조사대상이 극도로 편향된 특이 표본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많은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부작성 차원에서 조사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모두 유사한 방법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표집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적 짧은 1~2년 내외의, 길어봤자

5년 미만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자원봉사 부착성을 조사하였고, 그리하여 단기적으로는 불성실한 자원봉사자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 봉사활동 실태를 만족스럽게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에게서 발견되는 한계의 핵심이다.

2. 부착성 관련요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부착성 차원에서 살핀 선행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방법론적 한계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그리 많지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사자들은 자원봉사자 역할에 고(高)부착된 집단 구성원과 저(低)부착 혹은 비(非)부착된 집단 구성원의 특징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왔고, 그 결과를 꾸준히 학계에 보고하여 왔다[10]. 연구결과들은 다소 엇갈리거나 상충되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대체로 자원봉사자의 부착성과 관련된 설명요인들을 크게 여섯 개 변인군, 구체적으로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건강 및 인지심리적 변인군으로 나누어 본다는 데 동의한다는 점에서 일치된다.

먼저 인구학적 변인군에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등이 포함된다[29][45][46]. 연구들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업’으로 삼는 습관적 자원봉사자들을 성별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은 패턴을 나타낸다고 한다. 연령 측면에서는 청년층이나 노년층보다 중장년층의 부착성이 좀 더 높은 경향이 있고, 혼인상태 측면에서는 비혼자보다 기혼자, 기혼자보다 사별자의 부착성이 높다고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변인군에는 학력, 거주지역, 종교유무 등이 포함된다[30]. 연구들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역할에 대한 고부착성은 고학력자보다 저학력자, 농촌지역 거주자보다 도시지역 거주자에게서 좀 더 뚜렷하게 발견된다고 한다. 종교의 경우, 부착성에 대단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자원봉사를 평생에 걸친 생활양식으로 발전시킬 확률도 높은 것으로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경제적 변인군에는 취업상태, 전일제근로자여부, 자가소유여부 등이 포함된다[31][47]. 연구들에 따르면, 취업을 한 사람들의 경우 유급노동시장에서 받는 강한 시간적 압박 때문에 무급노동인 자원봉사자 역할에 부착성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인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취업자에 한정해 보았을 때에도 시간제근로자보다 유급노동에 대한 압박이 좀 더 큰 전일제근로자의 자원봉사 부착성이 떨어진다고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가소유주는 비자가소유주보다 자원봉사 부착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비소유자들보다 지역사회에 애착을 더 강하게 보이며, 그에 따라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봉사활동에 더 충실히 참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강관련 변인군에는 만성질환유무, 주관적 건강, 우울감 등이 포함된다[32]. 연구들에 따르면, 만성질환이 없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우울감이 낮을수록, 자원봉사참여수준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역할에 대한 부착성도 커져 평생에 걸쳐 봉사활동을 할 힘을 얻게 된다고 한다.

정치적 변인군에서는 정치적 관심도가 부착성의 관련요인으로 주로 검토되었다[12][33]. 연구들에 따르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와 현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비판적 시민의식이 강하고 상호호혜에 대한 인식도 강하여 다양한 형태로 시민적 활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은 적극성은 자원봉사자 역할에 대한 부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인지심리적 변인군에는 생활만족도, 일반적 사회신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된다[12][34]. 연구들에 따르면, 생활만족도가 큰 사람은 이타주의적인 태도를 체화할 가능성이 높고, 고양된 이타성은 평생에 걸쳐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도록 만드는 동력이 된다고 한다. 일반적 사회신뢰는 미지의 낮은 타자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상호호혜적 행동이 가져오는 친사회적 결과에 낙관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수시로 타인을 돕는 활동에 앞장서며, 이러한 적극성은

전반적인 자원봉사참여수준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역할에 대한 부작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한편,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경우, 그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상하이동에 대한 사회 전반의 낙관을 저해하고 저소득층에 열패감을 심어주며 상호호혜에 대한 인식을 갉아먹어, 자원봉사참여수준 자체를 낮추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평생에 걸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적 의지와 적극성을 꺾는 심각한 방해요인이 된다고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요컨대, 연구들은 자원봉사자 역할에 대한 부작성과 밀접히 연관성을 갖는 요인들을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건강 및 인지심리적 차원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왔다. 그러나 부작성을 조사한 연구들은 절대적 수 자체가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수행된 소수의 연구들조차 대부분 1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거나, 응답자들로 하여금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몇 년 간의 봉사활동 이력 전부를 상기하도록 요청하는 사후적 조사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방법론적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도와 설득력을 획득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을 갖는다. 또한, 앞서 열거한 다양한 변인군들을 하나의 연구모형에서 동시에 검증한 다변량 연구도 사실상 많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살핀 변수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아직 충분하게 조명 받지 못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개념, 특히 부작성 개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부작성의 관련요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불성실한 자원봉사자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성실한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 봉사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특징적 성격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관한 우리 인식의 지평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부터 10차년도

자료까지 총 10년 치 자료를 병합해 만든 데이터셋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국내에도 전국을 단위로 실시되는 대규모 공개 패널조사들은 많다[22]. 그러나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문항들을 묻고 그 응답을 기록하는 조사들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이 중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조사를 지속해 온 것이 바로 한국복지패널이다.

본 논문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부작성 차원에서 검증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때문에, 동일 봉사업무의 지속기간, 참여주기, 참여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여부보다, 조사대상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관여해 온 각종 봉사활동들의 총참여횟수를 빠짐없이 기록하였는지 여부가 연구의 성공에 관건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동일 조사대상을 추적조사하며 각 대상자들이 지난 1년 간 봉사활동을 하였는지, 만약 했다면 총 몇 회 하였는지를 묻고 그 답을 기록하여 왔다. 물론 좀 더 긴 시간에 걸쳐 자료를 축적하였다면 더욱 신뢰할만한 연구를 계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일반에 공개된 패널자료 중 한국복지패널만큼 자원봉사와 관련된 자료를 오랜 시간에 걸쳐 추적시켜 온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확보와 관련된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부터 10차년도 자료까지를 병합한 10년 치 데이터셋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부터 10차년도 조사까지 빠짐없이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0,52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1차 조사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8,415명만을 최종 분석자료에 포함시켰다. 1차 조사 당시 19세 이하 응답자들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들의 봉사활동이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소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이른바 서비스러닝의 성격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고[35], 이와 같은 비자발적 봉사자들이 표본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제대로 포착해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2. 변수측정

2.1 반응변수

본 연구의 반응변수는 10년 간 조사대상자가 관여해 온 자원봉사활동의 ‘총참여횟수’이다. 한국복지패널의 가구원 설문지에는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란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설문 참여자는 자신이 수행한 봉사업무의 내용, 종류, 업무교체, 정기성 여부 등에 상관없이 지난 1년 간 관여하였던 봉사활동들의 횟수 전부를 답하도록 요청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총 10년 치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설문참여자가 수행해 온 다양한 봉사활동들의 횟수를 수집하고, 그 값들을 모두가산한 총참여횟수를 반응변수로 설정하였다.

2.2 설명변수

본 연구의 설명변수들은 크게 여섯 개 변인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들의 관측치는 기준년도인 2006년 1차 조사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정치적 변인군과 인지심리적 변인군에 속하는 일부 설명변수들의 관측치는 관련 부가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0년 5차년도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변인군부터 소개하면, ‘여성’은 응답자의 성별이 남성이면 0, 여성이면 1값을 부여한 범주변수이다. ‘연령’은 응답자의 나이를 그대로 사용한 연속변수이고, ‘혼인상태’는 응답자가 기혼이면 0, 사별자면 1, 이혼/별거 중이면 2, 비혼이면 3의 값을 부여한 범주변수이다. ‘장애’는 장애가 없으면 0, 있으면 1값을 부여한 범주변수이다.

사회적 변인군에서, ‘학력’은 초졸 이하(0)부터 중졸(1), 고졸(2), 전문대졸(3), 4년제졸(4), 석사(5), 박사(6)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값을 부여한 서열변수이다. ‘도시거주’는 응답자의 거주지가 군/도농복합군이면 0, 서울/광역시/시이면 1값을 부여한 범주변수이고, ‘종교’는 응답자가 종교가 없으면 0, 있으면 1값을 준 범주변수이다.

경제적 변인군의 경우, ‘소득’은 응답자의 연간 가처분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개인소득에 자연로그 값을 취한 연속변수이고, ‘취업’은 응답자의 경제활동참여상태를 참고하여 비경제활동인

구/실직자이면 0, 그 밖의 모든 범주는 1값을 부여해 만든 범주변수이다. ‘전일제근로’는 비경제활동인구/실직자/시간제취업자이면 0, 전일제근로자이면 1값을 준 범주변수이고, ‘자가소유’는 주거점유형태를 참고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가 전세/월세/반월세/기타이면 0, 자가이면 1값을 부여해 만든 범주변수이다.

건강관련 변인군에서, ‘만성질환’은 아무런 질환을 앓은 적이 없거나 앓았더라도 6개월 미만으로 투병/투약한 경우 0,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한 경우 1값을 부여해 만든 범주변수이다. ‘주관적 건강’은 응답자에게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고 그 답을 매우 불만족(0)부터 매우 만족(4)까지 5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해 만든 서열변수이다. ‘우울감’은 설문지에 제시된 우울 관련 11개 항목들을 대상으로 2번과 7번 항목을 역코딩한 후, 1~4점에 걸쳐 기록된 변수값들을 0~3점으로 하향 조정한 뒤, 모든 항목의 값들을 더한 합산치에 20/11을 곱해 만든 연속변수이다[36].

정치적 변인군의 경우, ‘정치적 관심’은 전혀 관심이 없다(0)부터 매우 관심이 있다(4)까지 5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해 만든 서열변수이다. ‘정치적 성향’은 매우 진보적(0)부터 매우 보수적(4)까지 마찬가지로 5점 라이커트 척도를 사용해 만든 서열변수이다. 두 변수 모두 선택할 수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결측값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심리적 변인군의 경우, ‘생활만족도’는 “귀하는 건강,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친분관계, 여가활동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한 답을 매우 불만족(0)부터 매우 만족(4)까지 5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해 만든 서열변수이다. ‘신뢰’는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한 답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0), 대부분 믿을 수 있다(1)로 양분하여 만든 범주변수이다. 잘 모르겠음은 결측 처리하였다. ‘상호호혜’는 지역사회에서 누군가 위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기꺼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새롭게 비선호시설을 신축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전혀 그렇지 않다(0)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 5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한 후 두 응

답의 평균값을 구해 만든 연속변수이다. ‘지각된 불평등’은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한 답을 매우 평등하다(0)부터 매우 불평등하다(6)까지 7점 라이크트 척도로 측정해 만든 서열변수이다.

3. 분석방법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37], 관련 통계자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2007년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의 자원봉사참여율은 1.7%였고(지난 1년 간 봉사활동을 해보았는지 여부 기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그 수치는 2015년 5.1%까지 상승하였다고 한다.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전체 인구 대비 자원봉사자의 수는 여전히 적은 셈이다.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에도 상황은 비슷하여 본 연구의 자체적인 분석 결과, 자원봉사참여율은 지난 10년 간 매해 대략 7%에서 9% 내외의 수치를 기록하였을 뿐이다. 가장 높았던 것이 지난 2009년 4차년도 조사에서의 9.8%였다.

이처럼 저조한 자원봉사참여율은 연간 자원봉사활동 총 참여횟수의 분포가 0값을 중심으로 조밀하게 몰리면서 오른쪽으로 길고 낮게 깔린 꼬리 모양을 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실제로 본 연구의 사전분석결과,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봉사활동에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조사대상 8,415명 중 78.0%인 6,562명이나 되었다. 0값의 과잉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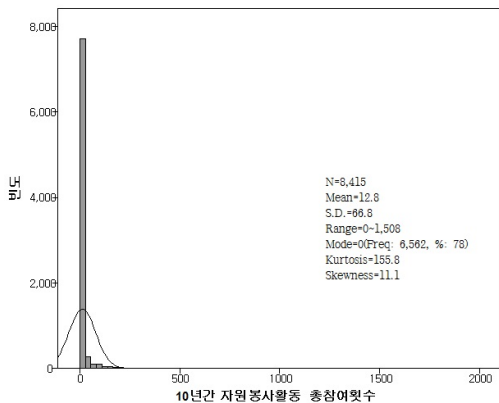


그림 1. 응답변인의 분포

관측치 대부분 0이고, 극히 일부 값들만이 매우 낮은 발생빈도로 양(+)의 영역에 산포되는 변인을 분석하는 경우, 다시 말해 비정규분포를 그리는 가산자료에 대한 다변량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선형 회귀모형이나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형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오차항을 연속확률분포인 정규분포의 가정 하에 모형을 추정하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비정규분포를 따르는 가산자료를 범주형으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손실하는 편의를 낳기 때문에 부적절하다[38]. 참고로, 가산자료(count data)란 빈도나 횟수와 같은 형태로 측정되는 계수자료를 의미한다. 통상 0, 1, 2, 3...과 같은 정수 형태를 띤다. 자동차사고발생빈도, 보험청구빈도, 무단횡단횟수, 낙상사고발생빈도, 수술후 감염발생횟수 등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에서는 가산자료를 활용한 분석방법이 많이 발달해 있다[39].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규분포를 그리는 가산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보통 포아송 회귀(poisson regression: PR)를 활용한다. 그러나 포아송 확률분포는 평균과 분산의 동일성을 기본 가정으로 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활용이 어렵다. [그림 1]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의 반응변수인 자원봉사활동 총참여횟수는 대부분의 관측치들이 0에 몰리면서 분산이 평균보다 월등히 큰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영과잉과 과대산포 현상을 감안하지 않는 PR 모형은 모수의 과소추정 그리고 표준오차의 과대추정이라는 편의를 야기하기 쉽다[39].

또 다른 가산자료 분석방식 중 하나인 음이항 회귀(negative binomial regression: NBR)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산포모수(dispersion parameter)를 1로 고정하는 PR과 달리, NBR은 0보다 큰 산포모수를 표본에 따라 융통성 있게 부여한다. 참고로, PR의 산포모수 1과 NBR의 산포모수 0은 동일한 확률분포 모습을 띤다. NBR에서 산포모수를 0보다 크게 설정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표준오차의 과대추정 및 회귀계수의 과소추정 문제를 보정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즉,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엄격하게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과대산포에서 비롯되는 문제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NBR은 가산자료 분포에서 흔히 나타나는 영과잉 문제를 여전히 기준확률분포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본 연구에서와 같이 극단적으로 0값이 많이 존재하는 높은 첨도의 가산자료 분석에 부적절한 측면을 갖고 있다[40].

상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과잉과 과대산포를 충분히 반영하는 영과잉 음이항 회귀(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ZINBR)를 주된 분석방식으로 채택하였다. ZINBR은 본 연구의 반응변수인 자원봉사활동 총참여횟수와 같이 비발생 사건들이 관측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일부 관측치들이 과대하게 한 쪽으로 기울어져 분포되는 비대칭적 가산자료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ZINBR에는 사건의 비발생(=봉사활동비참여, 0값을 나타내는 경우) 확률을 예측하는 로짓모형(logit model)과 발생한 사건의 빈도(=봉사활동 총참여횟수, 0이 아닌 값을 나타내는 경우)를 예측하는 카운트모형(count model)이 동시에 탑재되어 있어, 사건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더불어 이미 발생한 사건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하나의 모형에서 동시에 밝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41].

데이터클리닝과 기술통계분석에는 SPSS 23.0을, 패널자료 병합과 가산자료 분석에는 SAS 9.3을 이용하였다. 가산자료 분석은 PR, NBR, ZINBR의 순서로 실시하였고, 고정된 산포모수(=1)를 갖는 PR을 제외한 NBR과 ZINBR에서 모형추정 시, 산포모수는 어느 특정 값에 고정시키기보다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변하게끔 허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비대칭적 가산자료가 예상보다 큰 영과잉 및 과대산포 문제를 가질 수 있고, 만약 실제로 그러하다면 그와 같은 비대칭을 사전에 충분히 보정하게끔 여지를 주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추정된 모형은 우도비 검증을 통해 전체적인 유의성을 살폈으며, 모형의 적합성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2LL(-2 \times \text{Log Likelihood})$ 세 가지 통계량을 기준으로 평가·판단하였다[39][41].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결과

[표 1]은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응답자들의 10년 간 자원봉사활동 총참여횟수는 평균 12.8회였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508회였다. 이 수치들을 [그림 1]에서 제시한 왜도 및 첨도 값과 함께 고려해 보면, 본 연구의 반응변수 분포의 극단적 비대칭성은 여기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사실이라 말할 수 있다.

표 1. 주요변수들의 기술분석 결과 (N=8,415)

구 분	M (S.D)	Range	%
자원봉사활동 총참여횟수	12.81(66.81)	0~1508	-
여 성	-	-	56.5
연 령	51.76(15.97)	20~100	-
혼 인 상태	기혼	-	71.6
	사별	-	11.4
	이혼/별거	-	4.8
	비혼	-	12.1
장 애	-	-	8.4
학 력	1.72(1.35)	0~5	-
도 시 거 주	-	-	74.4
종 교	-	-	52.9
균등화개인소득 (자연로그변환)	6.94 (0.77)	2.09 ~9.95	-
취 업	-	-	56.9
전일제 근로	-	-	29.2
자 가 소 유	-	-	62.0
만 성 질 환	-	-	35.4
주관적 건강	2.37(1.19)	0~4	-
우 울 감	10.44(10.79)	0~60	-
정치적 관심	1.29(0.98)	0~4	-
정치적 성향	2.09(0.95)	0~4	-
생활 만족도	2.13(0.77)	0~4	-
신뢰	조심한다	-	47.0
	믿는다	-	42.0
상 호 호혜	2.48(0.80)	0~4	-
지각된 불평등	4.35(1.33)	0~7	-

조사대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고(56.5% > 43.5%), 연령은 평균 51세였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71.6%), 장애인 비율은 8.4%였다. 학력은 평균 1.72점으로 고졸 또는 중졸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거주환경의 경우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74.4%), 절반가

량이 종교를 갖고 있었다(52.9%). 연간 균등화개인가처분소득은 평균 1,289만원이었으며(자연로그변환시 평균 6.94만원), 어떤 형태로든 현재 일을 한다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56.9%). 전일제형태로 근로하는 자는 조사대상 전체의 삼분의 일이었고(29.2%), 과반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자가소유주였다(62.0%).

만성질환 보유자는 응답자의 삼분의 일가량 되었고(35.4%), 주관적 건강은 평균 2.37점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우울감은 평균 10.44점이었는데, 해당 척도의 분할점수(cutoff point)가 통상 16.0점인 점을 감안하면[36],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우울증으로 판별할만한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응답자들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정치적 관심수준은 보통 이하였고($M=1.29$), 정치성향은 진보나 보수보다 중도 쪽에 쏠려 있었다($M=2.09$). 생활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보통 또는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M=2.13$), 미지의 낯선 타인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대체로 믿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보다 경미하게 높았다($47.0\% > 42.0\%$). 상호호혜는 평균 2.48점으로 응답자들은 보통 정도의 상보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수준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보통 또는 보통 이상으로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4.35$).

2. 가산자료 분석결과

[표 2]는 가산자료 모형들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본 연구에서 특정한 복수의 가산자료 모형 중 자원봉사활동 총참여횟수를 예측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별해 내기 위하여 기준통계량인 $-2LL$, AIC, BIC를 이용하여 모형평가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세 통계치 모두 작은 값을 나타낼수록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한다[39]. 해당 통계량들은 [표 2]의 맨 밑 부분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기준통계량들은 PR보다 NBR이, NBR보다 ZINBR이 더 우수한 모형임을 보여준다. 특히 PR의 경

우 한두 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수들이 높은 통계적 유의성과 함께 극도로 과대추정된 채 산출됨으로써 본 연구의 자료와 적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PR은 산포 모수를 1에 고정시킨 반면 NBR와 ZINBR은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주어진 자료에 맞게 탄력적으로 값의 변화를 허용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형추정 과정에 과대 산포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ZINBR은 자료의 영과잉까지 추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모형의 적합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ZINBR에는 사건의 비발생확률을 예측하는 로짓모형과 발생한 사건의 빈도를 예측하는 카운트모형이 동시에 탑재되어 있다. 이를 본 연구와 관련지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로짓모형은 자원봉사활동 비참여와 관련된 요인을 예측하는 역할을, 카운트모형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참여횟수와 관련된 요인을 예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로짓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2]의 맨 오른쪽 두 번째 열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원봉사활동 비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요인은 여성($p < 0.05$), 연령($p < 0.10$), 학력($p < 0.01$), 종교($p < 0.01$), 소득($p < 0.05$), 자가소유($p < 0.05$), 정치적관심($p < 0.001$), 상호호혜($p < 0.05$) 등 총 여덟 개 변수였다. 이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남성, 고령자, 저학력자, 비종교인, 저소득자, 비자가소유자, 정치적관심도가 낮은 집단, 상호호혜의식이 약한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고, 반대로 10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봉사활동을 해본 사람은 여성, 젊은층, 고학력자, 종교인, 고소득자, 자가소유자, 정치적관심도가 높은 집단, 상호호혜의식이 강한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고 말할 수 있다.

카운트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2]의 맨 오른쪽 열에 제시하였다. 모형추정 결과, 자원봉사활동 총참여횟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된 요인은 학력($p < 0.01$), 종교($p < 0.01$), 상호호혜($p < 0.001$)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한 차례 이상 봉사활동을 해본 사람들로만 조사대상을 한정하였을 때, 이 기간 동안

표 2. 가산자료 모형의 추정 결과

(N=8,415)

구분	PR	NBR	ZINBR		
			Logit Model	Count Model	
혼인 상태	여 성	0.456***	0.270+	-0.560*	0.063
	연 령	-0.001	-0.050*	0.019+	-0.004
	사별	0.607***	1.025	-0.376	0.598
	이혼/별거	0.649***	1.554**	-0.562	0.838
	미혼	-0.232***	-0.466	0.376	-0.086
	장 애	-0.035	-0.514	0.085	-0.501
	학 력	0.052***	-0.116	-0.315**	-0.354**
	도 시 거 주	0.335***	0.557	-0.308	0.353
	종 교	0.957***	1.683***	-0.616**	0.889**
	소 득	0.410***	0.393**	-0.270*	0.091
취 업	-0.350***	-1.432**	0.157	-0.592	
전일제 근로	-0.044	-0.459	0.246	0.143	
자 가 소 유	0.501***	1.310**	-0.490*	0.378	
만 성 질 환	-0.071***	-0.497	0.084	-0.018	
주관적 건강	0.097***	0.141	-0.106	0.055	
우 울 감	-0.019***	-0.031	0.019	-0.012	
정치적 관심	0.126***	0.343+	-0.391***	-0.042	
정치적 성향	0.132***	0.095	0.050	0.145	
생활 만족도	0.356***	0.091	-0.157	0.107	
신 뢰	-0.100***	-0.059	-0.235	0.266	
상 호 호 혜	0.350***	0.480***	-0.177*	0.414***	
자각된불평등	0.034***	0.068	-0.033	0.074	
절 편	-2.497***	-0.962	3.284	0.625	
산 포 모 수	1	17.724	-	2.222	
-2 L L	6166.42	1379.04		1318.58	
A I C	9537.85	3806.08		3731.17	
B I C	9768.58	3920.58		3875.40	

+ $p <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1. 각 모형에서 추정된 회계계수들은 $\text{Log}(\lambda)$ (λ =사건발생빈도)를 나타냄.

주 2. 혼인상태의 기준집단은 기혼자임.

자원봉사자 역할에 상대적으로 더 몰입된 고(高)부착 집단은 저학력자, 종교인, 상호호혜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자원봉사자 역할에 상대적으로 덜 몰입된 저(低)부착 집단은 고학력자, 비종교인, 상호호혜의식이 약한 사람들이었음을 시사한다.

ZINBR에서 추정된 회계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으로 로짓모형과 카운트모형 간에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 같은 변수가 서로 다른 두 모형에서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었다면, 이 경우에는 추가해석이 요구된다. 사건의 비발생과 부적인 관계, 즉 사건 발생과 정적인 관계를 가졌던 어떤 한 변수가 사건의 빈도와는 정반대로 부적인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이는 그 변수가 해당 사건과 양가적 관계를 갖는다고 볼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38]. 본 연구에서는 학력이 그와 같은 속성을 띤 변수로 확인되었다. 학력은 로짓모형과 카운트모형에서 둘 다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

면서 음(-)의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10년 동안 최소 한 차례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쪽은 고학력자 집단이었지만, 일단 한 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만을 놓고 제한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저학력자 집단 구성원들이 고학력자 집단 구성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빈번히 봉사활동에 임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V. 논의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문제에 천착하되, 지속성의 현황을 그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되어온 헌신도 측면이 아닌, 방법론적 한계 등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거의 조명된 적 없던 부착성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는

데 학술적인 의의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년 치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조사기간 동안 응답자들이 참여한 모든 자원봉사활동들의 참여횟수를 합산해 이를 반응변수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지속적 자원봉사활동의 양상을 포착하였다. 다음으로, 반응변수를 설명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크게 여섯 개 변인군, 구체적으로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건강관련, 정치적, 인지심리적 변인군에서 분할추출하여 이들을 설명변수들로 확정지었다. 마지막으로, 반응변수와 설명변수들 간 관련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 역할에 고부착된 집단의 특징들을 선별해 내기 위하여, 영과잉 음이항 회귀라는 비선형적 모형추정방식을 주된 통계기법으로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전체 조사대상 8,415명의 지난 10년 간 자원봉사활동 총참여횟수는 평균 12.8회였다. 조사대상 한 명이 1년에 한 차례 또는 그보다 약간 많은 빈도수로 봉사활동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다. 그러나 그 범위는 0회부터 1,508회까지 극단적으로 넓었으며, 특히 0회를 기록한 사례, 즉 지난 10년 간 봉사활동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응답자가 6,562명이나 되어(78.0%), 자원봉사활동 총참여횟수는 정규분포가 아닌, 0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관측치들이 조밀하게 몰려 있으면서 일부 값들이 오른쪽으로 길게 꼬리형태로 내뻗은 비대칭 분포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열 명 중 여덟 명이나 되는 응답자(78.0%)가 지난 10년 간 봉사활동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는 자원봉사도 일종의 습관 - 네거티브한 의미에서의 습관 - 으로서 한 번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관성적인 사회활동임을 시사한다. 습관적으로 봉사활동 하기를 꺼리는 이른바 자원봉사 무관심자·무관여자들은 특히 남성, 고령자, 저학력자, 비종교인, 저소득자, 비자가소유자, 정치적관심도가 낮은 집단, 상호호혜의식이 약한 집단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지난 10년 간 최소 한 차례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조사대상 8,415명 중

1,853명으로서, 비율로 따지면 22.0%, 즉 다섯 명 중 한 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여성, 젊은층, 고학력자, 종교인, 고소득자, 자가소유자, 정치적관심도가 높은 집단, 상호호혜의식이 강한 집단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았다.

넷째, 지난 10년 간 최소 한 차례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조사대상자 1,853명에 한정해 보았을 때, 이들의 해당 기간 내 자원봉사활동 총참여횟수의 증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요인은 학력, 종교, 상호호혜의식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학력이 낮고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상호호혜의식을 강하게 내면화한 경우 자원봉사활동 총참여횟수는 커지고, 반대로 학력이 높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상호호혜의식을 약하게 내면화한 경우 자원봉사활동 총참여횟수는 작아지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자원봉사자 역할에 고부착된 사람들은 저학력자에 종교인일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덧붙여 만약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많다면 그러한 혜택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자들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모형추정에 투입된 다양한 변수들은 학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원봉사활동의 촉발 및 빈도 측면에서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학력 변수만이 유일하게 예외적인 패턴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고학력자는 저학력자보다 최소 한 번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임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일단 한 번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해 본 사람들로 조사대상을 한정해 보았을 때에는 저학력자의 자원봉사활동 총참여횟수가 고학력자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력 변수는 다른 변수들과 달리 자원봉사활동과 양가적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평생 혹은 그에 버금가는 긴 시간 동안 - 비록 불규칙적이고 저강도일지라도 - 봉사현장에 자주 나타나 다양한 봉사업무들을 꾸준히 수행하는 지속적 자원봉사자들, 다시 말해 봉사활동을 하나의 생활양식으로까지 발전시킨 습관적 자원봉사자들은 배움이 부족하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덧붙여, 사회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혜택을 환원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여성, 젊은층, 고학력자, 고소득자, 자가소유주, 종교인, 정치적관심도와 상호호혜의식이 높은 자들이 그 반대편 속성을 가진 자들보다 자원봉사활동을 한 번쯤 해 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도 분명히 보여주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특징들은 헌신도 차원에서 봉사활동지속성 현상을 조사해온 연구들이 제시한 지속적 자원봉사자의 전형적인 모습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천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6개월이나 1~2년, 길게는 3~4년의 시간 동안 특정 봉사활동을 강렬하게 주기적으로 수행한 후 봉사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소위 지속적 자원봉사자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본 연구는 그와 같은 봉사자들이 지속적 자원봉사자로 분류되는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전제하면서, 동일 봉사업무의 지속기간, 참여주기, 참여시간 등 기존 연구들이 주목하던 내용들을 조사하기보다, 평생 혹은 그에 버금가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다양한 봉사업무들을 수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습관적이고 지속성 높은 자원봉사자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연구문제와 목적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0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나의 업으로 삼고 - 비록 불규칙적이고 저강도 일지언정 - 빈번히 현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지속적 자원봉사자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 역할에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고부착된 사람들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력수준이 낮고 종교를 갖고 있으며 사회에 받은 만큼 환원해야 한다고 믿는, 고마워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2. 시사점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관리자 등 현장의 많은 실천가들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주로 헌신도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 동일 봉사업무를 강도 높게 수행하는 정기적 자원봉사자만

을 충성스럽고 신뢰할만한 봉사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였다[5]. 실제로, 헌신도 차원에서 지속성을 이해한 현장의 일부 봉사자 관리매뉴얼들은 ‘유급노동을 하지 않고 소득수준이 높으면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자 존감 높은 여성’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지속적 자원봉사자의 전형들을 제시하였고, 그와 같은 특성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모집·교육한 후 현장에 배치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봉사조직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언을 하였다[42][43].

그러나 헌신도가 높다고 해서 부착성 역시 크다는 보장은 없다. 둘은 이론적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본 논문의 조사결과가 보여주듯 경험적으로도 불일치하는 속성들을 포함한다. 이 말인즉슨, 헌신도가 높은 사람과 부착성이 높은 사람은 성격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천적인 접근방식도 달라야 함을 뜻한다. 물론, 헌신도가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잠재적으로 우수한 자원봉사자 인력으로 규정하고 그와 같은 인력을 중심으로 봉사자를 모집·교육·배치하는 봉사조직 운영관리 방식은, 단기적으로 충성스럽고 신뢰할만한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고 활용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보장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평생에 걸쳐 꾸준히 봉사활동을 습관적으로 해 나갈 저력을 갖춘 또 다른 의미의 충성스럽고 신뢰할만한 우수 봉사자인력을 놓친다는 측면에서,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봉사조직 운영관리 방식이라 볼 수도 있다.

봉사활동을 일종의 ‘업’으로 삼는 소수의 비정기적 자원봉사자들은 6개월이나 1, 2년 혹은 3년 단위로 끊어서 보았을 때는 봉사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무관심자·무관여자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10년이나 20년, 또는 그보다 긴 시간을 놓고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봉사활동을 강도 높게 수행한 후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일반적인 봉사자들보다 자원주의적 가치와 규범들을 훨씬 더 깊숙이 내면화한, 진정한 의미의 지속적 자원봉사자일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그와 같은 가능성을 종교가 있고 상호호혜의식이 강한 저학력자 집단에서 찾았다. 봉사자 인력풀의 안정적인 구축과 온전한 활용에 관심을 가진 실천현장의 관리자 들이 본 연구의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염두에 두고 봉

사자 관리 및 운영 매뉴얼을 재정비한다면, 장기간에 걸쳐 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충성스럽고 신뢰할만한 ‘봉사꾼’들을 더욱 많이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오로지 부작성의 측면에서만 살피으로써 부작성과 헌신도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장점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후속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개념을 포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좀 더 확장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개념을 부작성과 헌신도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점검하는 연구모형 구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쉽게 측정이 가능한 가시적인 인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부작성 관련 요인들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 역할에 고부착된 사람들의 특징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작성이 높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습관화시키게 된 계기와 이유를 개인 내면의 비가시적인 특질들, 예컨대 동기나 퍼스널리티와 같은 심리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조사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자원봉사자 역할에 고부착된 사람들의 봉사동기 및 퍼스널리티 유형 연구는 심층인터뷰 등 질적 방법을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주성수, *자원봉사 - 이론, 제도, 정책*, 아르케, 2005.
- [2] 표갑수, *자원봉사전*, 나남출판사, 2010.
- [3] 류기형, 남미애, 박경일, 홍봉선, 강대선, *자원봉사전*, 양서원, 2016.
- [4] 구혜영, *자원봉사 조직특성 및 업무특성의 자원봉사자 활동유효성에 대한 영향 구조*,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5] 장덕희, 장지연, “자원봉사활동의 인정보상이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5권, 제3호, pp.301-322, 2009.
- [6] 김대홍,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지속성 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7] 이정해, 김현주, “물질적 지원이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 pp.73-95, 2014.
- [8] J. Wilson and M. Musick, “Attachment to Volunteering,” *Sociological Forum*, Vol.13, No.2, pp.243-272, 1999.
- [9] J. Wilson, “Somethings Social Surveys Don't Tell Us,” In *Processes of Community Change and Social Action*, edited by A. Omoto, Psychology Press, pp.11-28, 2014.
- [10] 김옥진, *자원봉사 - 영향요인과 파급효과*, 청목출판사, 2015.
- [11] L. Hustinx and F. Handy, “Where Do I belong? Volunteer Attachment in a Complex Organization,”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Vol.33, pp.202-220, 2009.
- [12] M. Musick and J. Wilson, *Volunteers - A Social Profile*,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 [13] 유용식, 손호중,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제8권, 제2호, pp.27-57, 2009.
- [14] 정진석, 조미정, 채현탁,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정보상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8권, pp.95-112, 2009.
- [15] 김정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대구 시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 pp.117-138, 2010.
- [16] 구혜영, 김일동, “개인·업무·조직요인이 여성노인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11권, 제1호, pp.89-122, 2014.
- [17] 최영창, 장연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 참여 및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2호, pp.87-109, 2008.

- [18] 이해룡,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19] 이정혜, 김현주, “물질적 지원이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 pp.73-95, 2014.
- [20] 오효근, 김옥,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결정요인에 대한 경로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5권, pp.297-327, 2008.
- [21] 김범수, 권선진, 신승연, 이종복, 손영희, 정옥희, 정용충, 최은숙, *자원봉사론*, 학지사, 2011.
- [22] 김희삼, “패널 자료를 이용한 연구 방법,” 2015년 한국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방법론 강의, 2015.
- [23] 이은주,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24] 권영섭, 정순돌,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방재학회*, 제9권, 제3호, pp.75-79, 2009.
- [25] M. Planty and M. Regnier, *Volunteer Service*,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3.
- [26] S. Oesterle, M. Johnson, and J. Mortimer, “Volunteerism During the Adulthood,” *Social Forces*, Vol.82, No.3, pp.1123-1149, 2004.
- [27] M. Musick and J. Wilson, “Volunteering and Depressi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56, pp.259-269, 2003.
- [28] K. Johnson, K. Foley, and G. Elder, “Women’s Community Service, 1940-1960,” *Sociological Quarterly*, Vol.45, pp.45-66, 2004.
- [29] S. Barkan, S. Cohn, and W. Whitaker, “Beyond Recruitment: Predictors of Differential Participation in a National Anti-Hunger Organization,” *Sociological Forum*, Vol.10, pp.113-134, 1995.
- [30] L. Penner, *Reducing Delinquency through Service*, Washington D.C.: Corporation for National Service, 2002.
- [31] J. Merrell, “You Don’t Do It For Nothing,”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Vol.8, pp.31-39, 2000.
- [32] M. Flick, M. Bittman, and J. Doyle, *The Community’s Most Valuable Asset - Volunteering in Australia*,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2002.
- [33] J. Downton and P. Wehr, *The President Activist: How Peace Commitment Develops and Survives*, Westview Press, 1997.
- [34] E. Uslaner and M. Brown, “Inequality, Trust, and Civic Engagement,” *American Politics Research*, Vol.33, No.6, pp.868-894, 2005.
- [35] 권순철, 김성봉, “중등교육과정에서 학생봉사활동과 봉사학습의 확장,” *교육종합연구*, 제13권, 제4호, pp.89-114, 2015.
- [36] 신재동,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인의 건강,” *보건복지포럼*, 제170권, pp.23-31, 2015.
- [37] <https://www.1365.go.kr/vols/>
- [38] 장미희, 박창기, “영과잉 가산자료 분석방법을 이용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노인학대 발생과 심각성에 미치는 위험요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제42권, 제6호, pp.819-832, 2012.
- [39] 최종후, 고인미, 전수영, “제로팽창 모형을 이용한 보험데이터 분석,” *응용통계연구*, 제24권, 제3호, pp.485-494, 2012.
- [40] 정재풍, 최종후, “교통사고건수에 대한 포아송 회귀와 음이항 회귀모형 적합,” *한국자료분석학*, 제14권, 제1호, pp.165-172, 2014.
- [41] 송혜정, 류방란, 신희경, “고등학생의 무단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한국교육*, 제38권, 제3호, pp.107-136, 2011.
- [42] H. Edwards and K. Allen, “Volunteer Demographics,” Chapter 2, In *The Volunteer Management Handbook*, edited by T. Connors, Wiley Press, 2011.
- [43] J. Smith, “Shaping an Organizational Culture of Employee and Volunteer Commitment,” Chapter 4, In *The Volunteer Management Handbook*, edited by T. Connors, Wiley Press, 2011.

- [44] 주성수, *나눔문화*,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 [45] 이용관, “누가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가?”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1호, pp.275-298, 2015.
- [46] 김태룡, 안희정, *사회자본과 자원봉사 - 관계와 대안*, 집문당, 2011.
- [47] 김태연, 김옥진, “유급노동과 자원봉사의 관계 - 대체관계인가 보완관계인가?”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7권, 제1호, pp.31-56, 2016.

저 자 소 개

송 기 영(Kee-Young Song)

정회원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7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관심분야> : 장애노인, 성공적 노화

김 옥 진(Wook-Jin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2004년 6월 : University of Chicago, School of Social Service Administration(A.M.)
- 2010년 8월 : University of Chicago, School of 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Ph.D.)
- 2012년 3월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자원봉사, 공동체, 사회적 자본